

2025년 3월

14호

CHA PHARM *IN*

약대생이 쓰는 약대 이야기



차 의과학대학교 약학대학

편집부의 말

목현승 : 작년 이맘때쯤 5학년 올라가며 편집장을 시작했던 게 엇그제 같은데 1년이 지났다니 눈시울이 붉어집니다. 2025년도 우리 약대구성원들과 차팜인이 함께하는 즐거운 1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ㅎㅎ

신선 : 이번 겨울호차도 정성을 담아 조금 새롭게 준비했습니다! 모두들 수고하셨고 다들 재밌게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ㅎㅎ

김동현 : 항상 그렇듯 열심히 준비하였습니다 재밌게 읽어주세요 :)

안지우 : 이번 겨울호도 잘 읽어주세요♥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꾸벅 올해 더 행복하길~!

이현영 : 시간이 참 빠르네요~ 인내하며 기다리면 6학년은 옵니다 ♥사랑하는 후배님들 화이팅^^♥

오승범 : 기사 작성을 위해 올 한 해도 열심히 살아보겠습니다당~~ 차팜인 멤버들 화이팅^_^

이가영 : 올해는 더 풍성한 한 해가 되길~!

조혜림 : 차팜인 최고입니다 d=(^o^)=b

신은서 : 이번 기사도 많은 학우분들의 도움과 함께 잘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감사했습니다!

오채현 : 올해도 잘 부탁드립니다. 차팜인 화이팅!

손정호 : 차팜인과 함께라서 행복해요 ㅎㅎ

김미행 : 차팜인 파이팅 올해 파이팅

배예진 : 이번 겨울호도 열심히 준비했으니 재밌게 읽어주세요~! 2025년 새 학기도 다들 화이팅!!

이채원 : 이번 호차도 잘 부탁드립니다.

손윤서 : 재밌게 읽어주세요!! 올해도 화이팅 ('ㅍ)

한우린 : 이번호도 많이 읽어주세요~! 2025 차팜인 화이팅!! ♥

지도교수

양영덕 ntsky0816@cha.ac.kr

편집장

목현승 (약학과 20), chapharmin@naver.com

편집팀

신 선 (약학과 22), 조혜림 (약학과 22), 김미행 (약학과 21), 이채원 (약학과 22), 한우린 (약학과 24)

취재팀

오승범 (약학과 21), 목현승 (약학과 20), 이가영 (약학과 21), 손윤서 (약학과 23)

안지우 (약학과 20), 신은서 (약학과 23), 손정호 (약학과 19), 배예진 (약학과 21)

이현영 (약학과 20), 김동현 (약학과 22), 오채현 (약학과 23)

발행회차

2025년 14호

펴낸 곳

차 의과학대학교 약학대학 교지편집부

01

목차 / 편집부의 말

02

화이트코트세리머니&차팜데이

03

차팜인이 만난 사람

04

약학술기센터를 만나다

05

생물보안법, 무엇인가?

06

의료기관 실습 대비 백신 TIP

07

약학과 주점

08

학생회 국별 소개

09

과대, 부과대의 모든 것

10

뻘 MT

11

USCA 서부 여행기

12

시험기간 이모저모

2025년도 화이트코트세리머니 &차팜데이

배예진 기자



10/31

지난 2024년 10월 31일과 11월 1일 양일에 걸쳐 차 의과학대학교 현암기념관 대강당에서 제9회 차팜데이와 5학년 학우들의 화이트코트 세리머니 행사가 진행되었다. 작년과 달리 올해는 행사를 이틀에 걸쳐 진행하여 더욱 다양한 공연과 선배님들의 알찬 강연으로 풍성하게 진행되었다. 10월 31일 첫날 진행된 화이트코트 세리머니에서는 약학과 1-5학년 학생들과 교수님들이 참석해주셔서 자리를 빛내주셨고, 1부, 2부, 3부 총 세 타임으로 나누어 13시부터 행사가 진행되었다.

1부에서는 학장님의 개회사에 이어 성남시 약사회장과 사무국장님, 분당차병원 약제부장님이 축사를 진행해주셨다. 이후, 올해 화이트코트 세리머니의 주인공인 20학번 학우들의 입학 후 포천에서 보낸 3년간의 추억을 담은 영상이 상영되어 감동을 주었다. 연이어, 가장 중요한 행사인 화이트코트 수여식과 함께 디오스코리데스 선서가 진행되었다. 화이트코트 세리머니는 약국, 제약회사, 병원 등 다양한 분야에서 1년간 기초 약사업무를 익히면서 현장 실무 실습을 배우는 5학년 학생들의 화이트가운 수여식과 디오스코리데스 선서로 구성되었다. 다 같이 기념사진을 찍으며 교수님과 후배들의 축하와 응원 속에서 20학번 학우들의 화이트코트 세리머니가 성황리에 마무리되었다.



“약학과의 대표적인 행사의 주인공이 될 수 있어 영광이었습니다. 후배들과 교수님 앞에서 훌륭한 약학도가 될 것을 약속하며 책임감도 느끼면서 3년간의 학교생활을 잘 해냈다는 것에 대한 뿌듯함도 있었습니다. 축하해 준 후배들과 동기들에게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20학번 이상천 학우-

“의미 있는 행사를 학생회장으로서 준비하면서, 자연스럽게 약사라는 직업의 가치와 의미를 다시 한번 되새기게 되었습니다. 앞으로의 여정이 빛나길 바라며, 모든 선배님들의 새로운 출발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21학번 이가영 학우-

2부는 작년 겨울방학 동안 조유희 교수님의 연구실에서 약학연구입문을 진행한 송인석 학우의 연구 발표로 시작되었다. 이어서 지난여름 동안 미국 약학 교육 프로그램인 'usc'에 참여한 학생들의 발표와 약학과 교내 소식지인 '차팜안'에 대해 소개하는 시간으로 2부를 마무리하였다. 3부는 5학년 학우들로 구성된 밴드의 멋진 공연과 오케스트라의 아름다운 연주를 통해 분위기에 반전을 주며 행사를 마무리하였다. 5학년 학우들로만 구성되어 몇 개월 동안 열심히 준비하였기에 더욱 의미 있는 무대였다.

3부는 5학년 학우들로 구성된 밴드의 멋진 공연과 오케스트라의 아름다운 연주를 통해 분위기에 반전을 주며 행사를 마무리하였다. 5학년 학우들로만 구성되어 몇 개월 동안 열심히 준비하였기에 더욱 의미 있는 무대였다.

11/1



11월 1일 둘째 날에는 학술포스터 시상과 동아리 공연 및 졸업생들의 강연 등으로 구성된 제 9회 차팜데이가 진행되었다. 1부에서는 지난 겨울, 약학연구입문을 수강한 학생들이 교수님의 도움으로 제작한 학술 포스터에 대한 시상이 진행되었다. 이어서 약학과 밴드 동아리인 'Achappy'와 댄스 동아리인 '요약정리', 힙합 동아리인 '팜양갱', 오케스트라 동아리인 '팜상블'이 1년 동안 열심히 준비해 온 멋진 공연을 보여주어 교수님들과 학생들이 모두 함께 즐거운 분위기 속에서 차팜데이를 즐길 수 있었다.



2부에서는 병원, 제약, 개국 등 세 가지 분야에 진출한 졸업생 선배님들의 강연이 진행되었다. 병원 분야에서는 18학번 김은솔 선배님, 제약 분야에서는 16학번 이영미 선배님, 개국 분야에서는 09학번 조요한 선배님의 강연을 맡았다. 각기 다른 분야에서 활약하는 졸업생 선배님들의 강연과 질의응답을 통해, 학생들은 약학과 졸업 후 선택할 수 있는 폭넓은 진로에 대한 고민을 나누고 궁금증을 해소할 수 있는 유익한 시간을 가졌다.

마지막 3부에서는 차팜데이의 하이라이트인 경품 추첨이 진행되었다. 입장 시 학생들에게 배부된 추첨 번호가 불릴 때마다 곳곳에서 터져나오는 탄성과 탄식들에 1,2,3등 경품에 추첨된 학생들의 재치 있는 소감이 더해져 더욱 활기찬 분위기가 조성되었다. 모두가 기다려온 경품 추첨을 끝으로, 화이트코트 세레모니와 제9회 차팜데이 행사가 성공적으로 마무리되었다.

차팍人이 만난 사람

원태형 신임 교수님

지난 2024년, 차의과대 약대에 새로운 교수님이 부임하시며 새로운 바람이 불었다. 생약학, 천연물 의약품학 수업을 강의하시며 학생들에게 귀감이 될 원태형 교수님의 이야기를 담아보았다.



원태형 교수님

Q1. 차의과대 약학과에 새로 부임하시게 된 것을 축하드립니다! 작년 9월 새로 부임하시게 되어, 아직 교수님의 강의를 듣지 못한 학생들이 많은 것으로 생각합니다. 간단하게 자기소개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천연물 과학 전공 교수로 부임하게 된 원태형입니다. 축하와 인터뷰 요청에 감사드립니다.

저는 충북대학교 약학대학 학부를 졸업하고 서울대학교 약학대학에서 천연물 과학 전공으로 박사학위를 받았습니다. 이후 미국 코넬대학교에서 박사후 연구과정을 마치고 차의과학대학교에 오게 되었습니다.

아직 수업 외에는 만나지 못한 학생들이 많은 것 같은데, 앞으로 다양한 기회를 통해 만나 뵙길 기대합니다.

Q2. 우리 학과의 신임 교수님으로 처음 부임하셨을 때의 생각과 소감이 궁금합니다.

차의과학대학교에 임용이 결정되었을 때 기대감과 함께 큰 책임감도 느꼈던 것 같습니다. 독립적인 연구자로서, 그리고 후진 양성을 위한 교육자로서 두 가지 역할을 어떻게 더 잘 수행할 수 있을지 계속해서 고민하고 있습니다.

지난 학기에 2학년 생약학, 3학년 천연물 의약품, 4학년 약학 실습 과목 수업을 진행했습니다. 처음 학생들을 만나기 전에는 여러 가지 걱정이 있었지만, 학생들의 열정적인 참여와 적극적인 질문에 큰 보람을 느꼈고 이에 저도 더욱 열심히 준비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현재 연구 면에서도 새로운 환경에서 연구실을 세팅하고 연구 방향을 설정하기 위해 큰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교육과 연구 두 분야 모두에서 끊임없이 노력하며 학생들의 성장과 학문 발전에 기여하겠습니다.

Q3. 평소 교수님의 취미 생활은 무엇인가요? 쉬는 날에는 어떤 것을 주로 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신임 교원으로서 수업 준비와 연구 계획 수립에 많은 시간을 할애하고 있어 평일과 주말을 대부분 연구실에서 보내고 쉬는 날이 많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도 가끔 시간이 날 때는 테니스와 골프를 즐기고 맛집을 찾아다니는 것을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졸업 후 사회에 나오면 업무들로 인해 개인적인 활동 시간이 많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에 학생 여러분께는 하고 싶은 것들을 지금 많이 경험해보시길 진심으로 추천해 드립니다.





Q4. 원태형 교수님의 대학교 시절은 어떠셨나요? 어떤 학생이셨는지, 또 기억에 남는 추억들은 어떤 것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저의 대학교 시절을 돌이켜 생각해 보면 평범한 학생이었습니다. 강의실에서 배우는 학업 외에도 다양한 경험을 해보고 싶었고 여행, 동아리 활동 등으로 친구들과 선후배와의 교류를 통해 많은 것을 배웠던 것 같습니다.

즐거웠던 일들도 있고 힘들고 어려운 순간도 있었지만, 시간이 지나고 지금 돌이켜보니 그 기억들이 소중한 추억이 되고 이러한 경험들이 제 인생의 중요한 밑거름이 되었다고 믿고 있습니다.

Q5. 미국 코넬대학교에서 Postdoctoral Associate를 하실 때 가장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박사 후 연구과정 기간에는 연구 관련 에피소드들이 많이 있지만 지루할 수 있어서 넘어가겠습니다. 그 외에 부족한 언어 능력을 보완하고 미국 문화에 적응하기 위해 큰 노력을 기울였던 것이 기억에 남습니다. 이렇게 힘들었던 일들도 있었지만, 부모님과 함께 미국을 여행했던 일, 그리고 제가 미국을 떠나기 직전에 지도교수님 집에서 실험실 친구들과 다 함께 바베큐 파티를 하며 마지막 인사를 나눴던 일 등의 즐거웠던 기억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외 많은 기억들이 모두 소중한 추억으로 남아있습니다.

Q6. 교수님의 연구 분야는 장-뇌 축의 장내 미생물 대사 연구, 진균의 2차 대사 연구 등 생리 활성 물질 탐색에 기반을 두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지금의 연구 분야에 관심을 가지게 된 계기가 무엇인가요?

박사과정 기간 생약과 해양 천연물에서 유래한 생리활성 물질을 찾고 NMR, MS 등의 장비를 이용해 화합물의 구조를 규명하는 연구를 수행하며 신약후보물질로 사용될 수 있는 새로운 화합물을 발견할 때마다 큰 보람을 느꼈던 것 같습니다.

최근 유전체학의 급속한 발전을 바탕으로 유전자에서 시작해 생합성 과정을 거쳐 최종 산물인 대사체까지 전체적인 과정에 대해 연구하는 천연물 기반 융합 연구가 새롭게 떠오르는 중요한 분야로 주목받게 되었고, 저 또한 이 분야에 큰 흥미를 느끼게 되었습니다.

저는 특히 진균과 장내미생물 유래 천연물에 대하여 연구를 진행하며 대사물질들의 역할과 기능을 탐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연구를 통하여 천연물들이 생명 현상에 어떻게 관여하는지, 그리고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이용할 수 있는지를 밝혀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직 많은 부분이 미지의 영역이지만, 이 분야의 연구가 인류의 건강과 의학 발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 믿습니다.

Q7. 지금까지 인터뷰에 응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자라나는 새싹 같은 차약이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먼저, 어려운 입시 과정을 거쳐 약학대학에 입학하고 다양한 전공 과목들을 공부하며 노력하는 여러분께 깊은 존경을 표합니다. 여러분의 노력과 열정이 앞으로 사회에 크게 이바지할 수 있는 인재로 성장하는 밑거름이 될 것이라 믿습니다.

조언을 하는 것은 항상 조심스럽지만, 대학 시절은 진로에 대한 고민뿐만 아니라 앞으로의 삶에 대해 깊이 생각해 볼 수 있는 중요한 시기인 것 같습니다.

학업에 충실하면서도 세상의 여러 다양한 경험을 쌓으며 여러분들만의 꿈과 목표를 찾고, 어려움 앞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끊임없이 배우고 성장하려는 자세로 노력한다면 반드시 빛나는 미래가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항상 여러분을 응원하겠습니다.





미래 약사를 위한 필수 공간 약학술기센터를 만나다



차 의과학대학교 약학대학이 약학술기센터(Pharmacy Skills Learning Center)를 설립하면서 학생들의 실습 교육을 한층 더 강화하고 있다. 이번에 약학술기센터를 이끌고 있는 최보윤, 심미경, 홍은진 교수님과 인터뷰를 통하여 설립 배경과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 이야기를 들어보았다.

PHARMACY SKILLS LEARNING CENTER

약학술기센터, 왜 만들어졌나요?

Q. 약학술기센터가 설립된 이유가 궁금합니다.

A. 약학술기센터(Pharmacy Skills Learning Center)는 약학대학 통합 6년제 교육과정 개편에 따라 증가한 임상 실습과 PBL(Problem-Based Learning) 교과목을 효과적으로 지원하고자 설립되었습니다. 주요 목표는 무균주사제, 산제, 정제 등 다양한 제형의 조제술기와 약물치료적 문제 해결 능력을 강화하는 것이며, 이를 통하여 "미래 약사의 역량을 강화하는 혁신 교육 센터"로서의 비전을 실현하고자 합니다.

여기서 어떤 실습을 할 수 있나요?

Q. 약학술기센터에서 제공하는 실습과 연계된 과목은 무엇인가요?

A. 약학술기센터에서는 3학년의 임상약학의 이해 및 실습, 4학년의 질환별 약물치료 실습, 5학년의 예비실무실습 등의 임상 실습 교과목을 운영합니다. 3~5학년의 질환별 약물치료 PBL 강의 또한 약학술기센터에서 진행합니다.

다른 실습 공간과 차별점은?

Q. 약학술기센터만의 특징이 있다면 무엇인가요?

A. 본교 약학대학에는 약학술기센터 외에도 지역약국 실습 공간인 실습약국, 그리고 국내 약학대학 최초의 의료기관 실습 공간인 임상술기센터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이에 반해 약학술기센터는 조제 실습과 PBL 지원에 중점을 둔 공간으로, 클린벤치를 구비한 무균주사조제실과 검수실, 조제대, 처방 검토와 약물정보 처리를 위한 개인용 서피스 기기, 그룹별 토의를 위한 원탁 등의 시설을 갖추고 있습니다. 각 교과목의 주차별 실습 내용 및 목적에 따라 약학술기센터와 기존의 실습 센터를 병행하여 운영할 예정입니다.



실습이 학생들에게 주는 의미

Q. 실습이 학생들에게 어떤 도움이 될까요?

A. 약학술기 실습은 강의시간에 배운 이론을 확장 및 체화하여 임상 현장에서 즉각적으로 적용 가능한 전문 역량으로 승화하는 과정으로, 예비 약사로서의 자질을 갖추기 위한 필수적인 과정입니다. 실제로 졸업생들은 EMR(Electronic Medical Record) 등을 활용한 본교 고유의 임상 실습이 외부 실습기관 실무실습 시, 더 나아가서는 약사로서 우수한 전문성을 발휘하는 데에 큰 도움이 되었다고 이야기하곤 합니다. 약학술기센터를 설립하여 더욱 넓고 쾌적한 공간에서 다양하고 심층적인 실습을 운영할 수 있게 되어 기쁩니다.

앞으로의 계획은?

Q. 약학술기센터의 향후 발전 방향이 궁금합니다.

A. 학생들이 더욱 다양한 질환과 의약품에 대한 술기를 경험할 수 있도록 임상 시나리오와 실습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개발하고, 실습 기자재와 의약품도 추가적으로 구비해 나갈 것입니다. 약학술기센터와 함께 차 의과학대학교 약학대학의 모든 학생들이 훌륭한 약사님으로 성장할 수 있기를 소망하고 응원합니다.

약학술기센터는 학생들이 실제 약국과 병원에서 실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돕는 중요한 공간이다. 앞으로도 실무 중심 교육을 통해 미래 약사의 역량을 키우는 핵심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차 의과학대학교 약학대학의 약학술기센터가 앞으로도 약사 교육의 선도적인 모델이 되기를 기대한다.

이가영 기자

BIOSECURE ACT



What is it...?

생물보안법, 무엇인가?

2024년에 새 학기가 시작된 것이 엇그제 같은데 벌써 한 해가 다 지나고 새로운 봄 학기가 다가오고 있다. 지난해 약업계의 큰 이슈가 무엇이 있었을까 소개하고자 여러 기사를 찾아보던 중 이름부터 흥미로운 '생물보안법'과 마주쳤다. 도대체 어떤 내용일까 감을 잡기도 힘든데,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자.

<생물보안법? 그게 뭐야?>



생물보안법(Biosecure Act)은 미국 상원 의원 게리 피터스를 중심으로 지난 2024년 1월에 발의된 법안을 말한다. 미국과 중국의 세계 패권 전쟁의 영역이 바이오산업까지 번진 것을 알 수 있는 대표적인 예시인데, 한 문장으로 말하자면 중국의 주요 바이오기업(우시바이오로직스, 우시엡택, 베이징게놈연구소, MGI테크, Complete genomics)들이 미국 내에서 사업을 정상적으로 할 수 없도록 제한하는 법안인 것이다.

과거에는 바이오 분야에서 중국의 기술력이 서구에 비해 매우 약하다는 평가를 받았지만, 최근엔 그 수준이 많이 높아졌으며 특정 분야에서는 미국을 추월했다고 평가받는 부분도 있을 정도(2024년 8월 호주전략정책연구소 보고서)이다.

이런 탓에 미국은 몇 년 전부터 중국을 견제하려는 국가기관 차원의 움직임을 보였다. 2019년에는 '외국인 투자 위험 심사 현대화법'을 통해 중국 기업의 미국 기업을 대상으로 한 M&A를 규제했고, 2020년엔 인권침해 의혹 관련 제재 대상 리스트에 BGI(베이징 게놈연구소)의 자회사를 올렸다. 2021년과 2022년에도 법안 제정, 중국 기업의 각종 제재 리스트 등재 등 여러 움직임을 보였다. 생물보안법도 그런 맥락 속에서 발의가 된 것으로 보인다.

< 우리나라랑은 무슨 상관인데? >

미국 생물보안법 주요 현황

법안 발의 배경	미국인의 개인 건강과 유전 정보를 우려 기업으로부터 보호
발의 시기 및 통과 절차	2024년 1월 법안 발의
	2024년 3월 미국 상원 국토안보위원회 통과
	2024년 9월 미국 하원 통과
	2024년 12월 미국 국방수권법안(NDAA), 예산지속결의안 불포함 —법안 통과 최종 불발
법안 내용	우려 기업으로 특정된 중국의 우시엡택, 우시바이오로직스, 베이징유전체연구소(BGI), 의료기기기업 MGI 등과 계약 금지
예상 국내 수혜 기업	삼성바이오로직스, 롯데바이오로직스, 셀트리온, 바이넥스, 에스티팜, 프레스티지바이오로직스 등

그림1. 생물보안법 주요 현황. 시사저널e



이 법안이 효력을 가지게 되면, 미국 내 기업뿐만 아니라 모든 나라에서 중국 기업들과의 거래와 교류가 어려워지기 때문에 반사적으로 우리나라의 바이오 기업들이 이익을 얻을 것으로 기대가 되었다. 삼성바이오로직스, 롯데바이오로직스 등 다품종 소량생산 CMO 기업의 수주 물량이 증가할 것이라는 기대가 있었고, 특히 에스티팜의 경우 중국을 대체할 원료의약품의 공급사로 선정되기도 했다. CDMO 업계에서도 수주 목표치를 높이는 회사가 많았다.

근데...?

그러나 지난 연말에 국방수권법(NDAA) 개정안과 필수법안예산지속결의안에서 모두 제외되면서 당분간은 통과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특정 기업을 제재하는 것은 적법한 절차와 명확한 해제 절차의 확립이 필요하다는 민주당의 반대가 있었다. 이로써 생물보안법의 독립적인 통과가 어려워졌고, 다른 방법도 있지만 그 역시 통과 시기가 불확실하다.

당장 우리나라에 이익이 있지는 않을 것이나, 앞으로 계속 상황을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중국기업들은 생물보안법 지정 해제를 위한 대책을 논의할 시간이 생겼다는 의견이 있고, 미국은 재집권에 성공한 트럼프 행정부가 자국 우선주의를 천명하고 있기 때문에 생물보안법에 관련된 것뿐만 아니라 무역 전반이 힘들어질 여지도 충분하기 때문이다.



PROPOSITION OF THE
BIOSECURE ACT,
WHAT HAS CHANGED?

후배들에게 전하는



의료기관 실습 대비 백신 TIP!

차 의과학대학교 약학과 5학년은 2학기부터 6학년 때의 의료기관 필수 실습을 준비하며 백신 접종을 해야 한다. 사람마다 다르지만, 많게는 6~8개를 새로 접종해야 하는 경우도 있어 부담이 적지 않다. 특히 실습지 배정이 5학년 2학기 중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종강 직후 바로 시작되는 실습을 준비할 시간이 부족해 백신 접종 일정을 급하게 잡아야 하는 일이 있기도 했다. 더구나 실습기관마다 요구하는 접종 항목이 다르고, 그 상세 정보가 늦게 전달되는 경우도 있어 때문에 촉박함을 느끼는 동기들이 많았다.

이 기사는 후배들이 실습 준비를 조금이라도 더 수월하게 할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작성했다. 겨울방학 중에 의료기관 실습을 진행 중인 20학번들을 만나 인터뷰를 진행하며 그들의 경험과 조언을 담아보았다.

중앙보훈병원- 강**

A, B형 간염, Tdap, MMR(1,2차), 수두(1,2차) 예방 접종을 해야 합니다. 과거 예방접종 이력을 확인해 보니 Tdap과 MMR 2차 밖에 없더라고요.. MMR은 2차 기록이 있었기 때문에 다시 맞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했는데, 1차 접종이 없으면 다시 맞아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도 최대한 예방접종을 적게 맞고 싶어 A형, B형 간염과 MMR, 수두 항체 검사를 진행했어요.

A형, B형 간염은 보건소에서 항체 검사를 해주지만, MMR과 수두는 보건소에서 해주지 않아 동네 가정의학과에서 검사를 받았어요. 그런데 항체 검사가 4가지 항목이라 비용이 10만원이나 나오더라고요.. 검사 결과 수두와 풍진만 양성인 나와서, 결국 MMR은 접종을 해야 했어요. MMR은 3가지 항목 중 하나라도 음성이면 접종을 해야하니 1, 2차 접종 기록이 없으면 개인적으로 검사보다는 접종을 추천드려요!

A형, B형 간염 항체 검사 결과도 모두 양성인 나와서, B형 간염은 보건소에서 1, 2차(1개월 간격)를 맞았고, 3차는 6개월 뒤에 맞아야 해서 아직 접종하지 않은 상태예요. A형 간염은 보건소에서 접종해주지 않아 동네 가정의학과에서 1차 접종을 했고, 비용은 8만원이었어요.. A형 간염도 2차접종이 6개월 뒤라, 아직 2차는 맞지 못한 상태예요.

A형, B형 간염 항체 검사와 B형 간염 예방접종은 보건소에서 해주니 보건소를 이용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아직 접종이 완료되지 않은 부분이 있지만, 1차 접종만 했더라도 병원에서 큰 문제는 없는 것 같아요..! 그래도 혹시 모르니, 병원이 정해졌다면 미리 접종이나 항체 검사를 시작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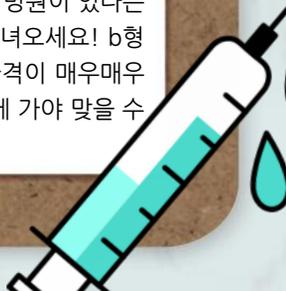
은평성모병원, 서울아산병원- 이**

두 병원에서 요구하는 주사항목과 검사항목이 다른데, 은평은 A,B형 간염, 수두, Tdap, MMR, 인플루엔자 주사를 맞아야합니다. 아산은 잠복결핵 검사항목이 있어서 x선 검사 외에도 추가적으로 혈액검사를 해야해서 비용이 많이 듭니다..ㅎ B형간염은 보건소에서 맞는 게 제일 싸고, 다른 예방접종은 의정부에 있는 경기북부산업보건센터가서 차의과학대학교 학생이라고 하면 제휴로 조금 저렴하게 접종할 수 있는데 거리가 멀어서 한 번 갈 때 4-5개씩 맞고 오세요 :)

강남차병원- 정**

예방접종 종류에 대해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MMR: MMR 2라고 적혀있는 항목이 있길래 방심하다가 맞기 싫어서 어떻게든 아기수첩을 찾아냈습니다. 2차가 한번에 두번을 맞는 것이 아니라 1, 2차로 나눠져있어야 한다는 사실을 명심하세요! B형 간염: 포천보건소에서 항체검사부터 했는데 혈관 얇은 사람은 각오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b형 간염 주사 역대급으로 아팠어요. 남자 동기들 중 별로 안아프다는 친구가 있는 것으로 보아 정말 근육량의 문제인가 싶었습니다. 수두, 인플루엔자는 권고사항이어서 맞지 않았습니. 특히 수두는 아기수첩에 기록있을테니 그거 전산에 올리는 것이 편할 거예요.

~접종사이트에 대해서~ 저는 MMR은 안맞았지만 주변 친구들 보니 의정부에 비교적 저렴한 병원이 있다는 듯합니다. 동기 선배들에게 물어보고 다녀오세요! b형 간염 백신은 포천보건소 추천합니다. 가격이 매우매우 매우 저렴하다는 장점이 있지만 4시 전에 가야 맞을 수 있어요!



분당서울대병원- 지**

분당서울대병원은 B형 간염, MMR, 수두, 인플루엔자를 맞아야 합니다. 저는 항체 검사를 한 결과 항체가 다 있다고 해서 다행히도 인플루엔자만 맞으면 됐었습니다. 예방접종은 실습하던 약국 옆 건물에서 4만원 주고 맞았습니다. 저렴하게 예방접종을 하고 싶다면 보건소에서 맞는게 좋을 듯 합니다!

동국대학교병원- 목**

동국대병원은 B형간염, MMR 1,2차 수두1,2차, 결핵을 맞아야 합니다. 의정부에 있는 경기북부산업보건센터가 좀 저렴합니다. 그러나 주차가 헬게이트인데 지하 주차장은 작고 길 폭이 좁아서 차량이 조금만 크면 올라올때 후진으로 올라와야 할 정도... 수두, MMR의 경우 보통 아기수첩보면 다들 어릴때 이미 맞았겠지만 병원 가기 전에 1차는 무조건 맞는게 낫고, 방금 말한 케이스라면 2차는 안맞아도 될 거 같다는게 개인적 의견입니다.

성심병원- 최**

필수로 MMR, 수두, B형간염, 백일해(Tdap), 인플루엔자를 맞아야 하고 권고사항은 코로나백신입니다. 예방접종 필수는 다른 병원에 비해 적은 편이고 거의 다 어릴 때 맞아야하는 것들이라 추가로 맞을 건 별로 없습니다. 저는 인플루엔자만 추가로 맞았어요! 다만 전산에 안 들어가있는 게 문제였는데 예방접종 맞았던 소아과에 전화해서 전산등록해달라고 하면 바로 해주십니다. 그리고 B형간염 같은 경우는 어릴 때 맞았어도 항체검사 다시 해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포천시보건소에서 하면 저렴해용

서울아산병원- 황**

수두, 인플루엔자, Tdap, MMR 예방접종을 했습니다. 이 전에 맞았던 백신과 비교했을 때 생각보다 아프지 않았고, 큰 통증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잠복결핵 검사는 과정이 번거롭고 시간이 오래 걸려서 다소 귀찮았습니다. 또한, 병원의 대기 시간이 길어 방문을 고려하는 분들에게는 신중한 선택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전반적으로 무난한 경험이었지만, 다음에는 더 편리한 장소를 선택하고 싶습니다!

잠복결핵검사 장소는 경기북부산업보건센터 추천해요! 정 시간 없으면 노원, 공릉 근처 내과들도 비교적 저렴하게 하는 것 같았어요! Tdap 주사는 약 반티가위로 자르다보면 손도 같이 자르기 때문에 10년 지났으면 맞고오세요,,, (경험담)

의정부 성모병원- 유**

b형간염,mmr,수두 접종해야 합니다. b형간염은 포천시 보건소에서 맞는 것 추천하고요, mmr이랑 수두는 집중독서실 있는 건물의 소아과가 싸다는 소문이 있어요 ㅎㅎ 귀찮으니까 그냥 빨리빨리 맞으세요~주사 한번에 몰아맞느라 팔이 상당히 아팠습니다... mmr,수두는 생백신이라 맞을때 돌이 한번에 맞는게 편해요!

분당차병원- 유**

필수 사항은 B형간염, MMR, 결핵입니다. 차병원은 특히나 필수 예방접종이 적으니 어릴 때 간염과 MMR을 예방접종을 잘 맞아왔다면 결핵 엑스레이만 찍으면 됩니다. MMR은 보통 전산에 누락되어 2차만 있는 경우가 많으니 그럴 경우 접종을 맞았던 병원에 문의하거나 1차만 다시 맞으면 됩니다. 포천시 보건소, 의정부 보건산업복부센터가 제일 가까우니 안맞았거나 혹시 항체검사 할 사람들은 거기로 가세요.

강릉아산병원- 최**

MMR, 수두, B형간염, A형간염, 백일해, 인플루엔자, 코로나 백신을 맞아야 합니다. 저는 송우리 우리병원에서 인플루엔자 백신을 맞았습니다. 약국 실습은 이비인후과 옆 약국으로 오게 되었습니다. 보니 독감이 심각하게 유행이고 다들 엄청엄청 아파합니다. 저는 예방주사 덕에 다행히 감기만 앓고 독감은 안 앓은 듯 하니 다들 미리미리 접종하세요!

이번 기사를 통해 의료기관 실습을 준비하며 겪었던 현실적인 어려움과 경험을 나눌 수 있었다. 앞으로 후배들이 더 나은 환경에서 실습을 준비하는 데 이 글이 작은 도움이 되길 바라며, 모두가 실습을 잘 마무리하길 응원한다. 실습을 준비하며 느낀 고민과 배움이 후배들에게 좋은 길잡이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란다.

후배들에게 전하는
**의료기관 실습 대비
백신 TIP!**

약학대학, '동물의 숲' 콘셉트 첫 주점으로 인기몰이 성공!



차팜인 손정호 기자



2024.10.29 - 30

첫 주점인데도 완판 행진! '모여봐요 약학의 숲' 메뉴 콘셉트까지

모여봐요

약학의 숲



#실 틈 없이 일하는 차약이들 #외모뿐만 아니라 마음까지 따뜻한 차약이들

약학대학이 처음으로 교내 주점에 참여해 화제를 모았다. 평소 학업에 바빠 학교 행사 참여가 적었던 약대생들이 이번에는 '동물의 숲' 콘셉트로 특별한 추억을 만들었다.

특히 방문객들을 위해 특별 제작한 동물의 숲 테마 머리띠와 메뉴판은 주점의 분위기를 한층 더 살렸다. 메뉴로는 수육, 제육볶음, 해장라면, 워킹 타코 그리고 계란말이를 준비했는데, 이를 동안 총 200인분 이상이 판매되며 성황리에 마무리됐다. 첫날부터 입소문이 나면서 타 단과대 학생들의 발길이 이어지며 대기명단까지 생겼고, 이는 약대의 첫 주점이 성공적으로 자리매김했음을 보여줬다.

주점운영팀장 송인석 학생(약학과5학년)은 "처음 하는 주점이라 걱정도 많았지만, 다들 너무 좋아해주셔서 감동이었어요. 특히 동물의 숲 머리띠를 하고 이를 동안 고생한 요리팀과 서빙 팀 모두에게 고마워요"라고 말했다. 운영팀에서는 "이번 주점을 통해 배운 점이 정말 많다"라며 "선후배간 협동심을 높이며 친밀해질 수 있는 좋은 기회였다"라고 입을 모아 말했다.

이번 주점의 또 다른 특별한 점은 수익금의 의미 있는 사용이었다. 포천시 영북면에 위치한 보육원인 '꿈이 있는 마을'에 밥솥, 청소기, 드라이기를 기부했고, 아이들을 위한 깜짝 선물로 치킨과 피자도 준비했다. "기부를 통해 나눔의 가치도 실천할 수 있어 더욱 의미 있었다"라고 운영팀은 덧붙였다.

이번 주점은 학업에 치중되어 있던 약대의 이미지를 벗어나 활기차고 즐거운 캠퍼스 문화를 만드는 데 한몫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첫 도전이었지만 성공적으로 마무리한 약대 주점, 내년에는 어떤 새로운 모습으로 찾아올지 기대해 봐도 좋을 것 같다.

실 틈 없이 일하는 차약이들



외모뿐만 아니라 마음도 따뜻한 차약이들



완판 행진 '모여봐요 약학의 숲' 메뉴

번호	메뉴	가격
1	박사 표 수육	15,000원
2	미애 는 제육이 쏘어	10,000원
3	황구 당 치즈!! 계란말이	8,000원
4	문복어 황태 라면?	5,000원
5	미셀 pick! 안주 라면	5,000원
6	애플어는 후도 타코 연유래	7,000원

대기 명단 작성 부탁드립니다...!





학생회 국별 소개

차팜인 - 김동현기자

안녕하세요. 차팜인 학생회 소개 글 작성을 맡은 차운 복지국장 22학번 김동현입니다.
 아직 차팜인에 학생회의 전반적인 국별 소개 글을 올린 적이 없었는데 2025학년도 새내기들을 위해 이 글을 작성하게 되었습니다.
 이 글이 새내기 학우들이 학생회의 여러 활동에 관심을 가질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더불어 2026년도 학생회에 많은 지원 부탁드립니다^^
 우리 학생회는 기획국, 미디어국, 복지국, 사무국, 학술국 이렇게 5개의 국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국별 소개를 간단히 드리도록 할게요

학술국

학술국은 이름에서 벌써 학구적인 분위기가 느껴지죠? 약학과 학우들을 위해 학업과 관련한 업무를 전담하고 있습니다. 주요 업무로는 약학과 학습카페를 운영하고, 시험 기간에는 자습실 관리를 하여 어렵고 양이 많은 약학대학의 학업을 효율적으로 이수할 수 있도록 학우분들의 고생을 덜어드리는 일을 최우선으로 하는 곳입니다. 꼼꼼하고 정리를 잘하시는 선배님들, 책임감 있는 후배들과 많은 교류가 이루어지는 국입니다. 추가로 이번 차운 학생회에서는 약학 연구 입문 및 USC에 관심은 있었으나 정보가 없어 쉽게 지원하지 못했던 학우들을 위해 관련한 정보집을 제작하여 배포할 예정이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가 가득한 후배들과 선배들이 함께 웃고 즐기며 새로운 활동을 마음껏 도전해 볼 수 있는 곳입니다.

사무국

사무국은 차의과학대학교 약학과에서 개최하는 모든 행사들의 재무관리를 맡고 있습니다. 행사에 사용되는 예산을 결정하고 결산하는 일을 담당하는 것이 주 업무이죠. 국원 간 빈틈없는 협동으로 학우 여러분께 신뢰를 보증해야만 하는 사무국은 꼼꼼하고 똑 부러지는 인재들을 항상 원합니다. 마음씨 따뜻한 국장님(?)과 책임감 넘치는 국원님들이 어우러지는 사무국! 애정 어린 시선으로 바라봐 주세요~

복지국

복지국은 제가 속해 있는 국입니다. 차의과학대학교 약학과에서 진행되는 행사들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발로 뛰며 학우들의 편의를 도모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시험기간 간식 행사 진행, 과잠 및 돕바의 공구 진행, 총 MT 물품 관리 등의 업무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학생회에 참여하고 싶었는데 별다른 재주가 없어 주저했던 저한테는 딱 맞는 곳이었어요^^

미디어국

혹시 크약을 아시나요?



새로운 차약의 마스코트인 크약이는 미디어국장 안은설 학우님께서 제작하였는데요!

이렇듯 미디어국은 차의과학대학교 약학과를 홍보하고 차약이들에게 정보를 전달하는 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인스타그램 관리, 홍보물 제작, 학과 행사 사진 촬영 등을 통해 약학과의 모습을 보여주고 기록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부터는 여러 가지 차약이 굿즈를 제작 판매하여 수익금 전액을 학생회비로 반영하여 차약이들의 복지를 개선하기 위해 사용될 예정입니다. 열정 있는 후배들과 센스 있고 감각적인 선배님들이 차약이들의 역사를 열정적으로 기록하고 있는 곳입니다.

기획국

기획국은 차약이들을 위해 다양한 행사를 기획하고 운영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주요 업무로는 OT, MT, 차친프 등 여러 가지 학과 행사를 기획하고 준비합니다. 또한 협찬 제안서 작성, 행사 전반의 운영을 담당하고 있어 학우들의 즐거움과 소통을 책임지는 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적극적이고 참신한 아이디어가 가득한 후배들과 선배들이 함께 웃고 즐기며 새로운 활동을 마음껏 도전해 볼 수 있는 곳입니다.

이렇게 5개의 국으로 이루어진 약학대학 학생회는 차약이들의 생활과 복지를 위해 즐거운 마음으로 활기차게 활동하며 보람을 채워 나가고 있는 곳입니다.

2025학년도에도 끌어주고 밀어주는 후배님들과 더불어 더 나은 학생회가 되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학우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응원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학생회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대, 부과대의 모든 것

새로운 학기에 시작하기 전 방학에 하는 것들에는 뭐가 있을까요? 시험이 끝났으니 폭 자기? 친구들과 여행 다녀오기? 다음 학기 수강신청하기? 물론 이런 것들도 있지만 한 학기 동안 한 학년을 대표하는 과대, 부과대를 정하기도 합니다. 사실 과대나 부과대가 되어보지 않은 사람들은 이들이 하는 일들이 뭐가 있는지 정확히 알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평소에 과대, 부과대를 해보고 싶다고 생각하다가도 정보가 없어 쉽사리 도전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보이는 것 같아 23학번의 첫 번째 과대이자, 2년간 23학번을 위해 열심히 일해준 나하영 학우에게 과대와 부과대의 일이 무엇이 있는지 물어보았습니다.

TAKE A LOOK

안녕하세요. 짧게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23학번 나하영입니다.

모두들 약간은 기피했던 23학번의 첫 번째 과대를 하게 된 이유가 있을까요?

: 처음에는 과대에 대한 막연한 부담감이 있었는데, 입학 즈음 선배한테 이야기를 듣고 과대에 관심이 생겼습니다. 결정적으로 못된 강동휘가 부추겨서 하게 되었습니다.

2년간 23학번 학우들을 위해 일해주었는데 이번에는 과대 직책을 내려놓았다고 들었습니다.

: 네, 과대 오래 하기도 했고, 과대를 해보고 싶어 하는 동기들도 있어서 그만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학기에는 과대를 하지 않으시는데 새로운 23학번 과대와 부과대에게 바라는 점이나 해줄 조언이 있으신가요?

: 대충대충 했으면 좋겠어요~ 2년 동안 일해보니 적당히~ 좋게 좋게 하는 게 서로에게 좋더라고요.

과대와 부과대가 하는 일들에 대해 궁금해하는 동기들이 보여서 이 인터뷰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어떤 게 있는지 소개 부탁드립니다.

: 교수님들, 학과 행정실, 학생회와 우리 동기들을 연결하는 역할을 한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교수님들과는 시험이나 시험 일정 조율을 하고, 행정실과는 강의실 수리 등 전반적인 사항들, 학생회와는 학과 행사 관련한 사항을 논의하고 동기들에게 공유합니다. 이게 과대 일의 전부입니다! 추가적으로, 선배들과의 대면식을 잡거나, 동기 MT 등을 추진하기도 합니다. 부과대는 과대가 하는 일을 보조하고, 특히 대부분의 학교 공지를 공유합니다. 그러니 부과대는 카톡을 자주 확인할 수 있는 동기가 말으면 좋습니다.

그러면 2년간 과대를 하면서 많은 고충들도 있을 것 같은데요. 가장 힘들었던 순간들이 있을까요?

: 과대가 하는 일은 정해져 있는 편인데, 동기들이 생각대로 따라주지 않을 때가 가장 곤란했던 거 같아요. 다른 학년과 다른 방향으로 가거나... 학년별로 다르게 진행하는 동기 MT! 요런 게 힘들었어요~ 선배한테 물어봐도.. 동기들에 맞춰서 해줘야 하는 일들이라서요 ㅎㅎ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과대에 대해 정리 부탁드립니다.

- ① 잘하는 사람이 할 필요 없다.
- ② 소통하고, 일정을 정하는 일이 재미있을 것 같으면 꼭 해보는 것을 추천한다.
- ③ 과대가 학창 시절의 반장과 비슷하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전혀 아니다.
40명 가까이 되는 인원을 대표하여 소통을 하는 사람일 뿐이다.
- ④ 동기들 과제 챙겨주는 일이 절대로 아니다.
- ⑤ 단, 귀찮고 자질 구려한 일이 종종 있기 때문에 그게 괜찮은지 잘 고민해 보면 좋겠다.

그러면 반대로 보람 있었던 적도 있을 것 같은데요. 어떤 게 있을까요?

: 일 잘 한다는 칭찬 들을 때 기분 좋죠~ 장학금이 들어오면 가장 보람 있습니다. ^0^!

7번? 아니 8번! 임티에서 뭐했어?!

11월 22일부터 23일 이틀간, 포천 고모리 저수지에서 20학번 목현승 선배님 실습 축하 파티 겸 7번 8번 MT가 진행 되었다. 동기 MT, 총 MT가 아닌 8번으로 가는 MT는 처음이라 다들 가기 전부터 기대를 많이 하였다.

출발~!

먼저, 수업이 끝나자마자 홈플러스에 모여 다 같이 장을 본 후, 숙소로 향했다. 그런데 숙소에 도착하고 보니 펜션 화장실 문이 완벽하게 투명했다. 안이 다 보이는 상당히 개방적인 화장실에 모두가 당황했지만 다행히 방을 3개 예약해서 1개는 여자 화장실, 1개는 남자 화장실, 1개는 함께 이야기하고 노는 공용 공간으로 이용할 수 있었다. 덕분에 한참을 웃다가 저녁을 준비했다. 된장찌개와 고기, 비빔면까지 진수성찬이었다. 날씨가 추운 겨울이었지만 다 같이 모여 이야기하다 보니 하나도 춥지 않았고, 블루투스로 연결한 노래와 수많은 별까지 완벽했다. 학교에서 차로 20분 정도밖에 걸리지 않는 가까운 거리에 이렇게 좋은 곳이 있는 줄 몰랐는데, 동기들과 글램핑을 계획하고 있는 분들께 강력 추천한다. 글램핑처럼 밖에서 바비큐를 먹을 수 있지만, 다 먹은 후에는 따뜻한 방에서 편하게 놓고 잘 수 있어서 더욱 좋았다. 펜션을 예약하지 않더라도 밤에 보는 고모리 저수지의 불빛이 정말 낭만적이니 한 번씩 와보는 것을 추천한다!

저녁을 먹은 후에는 목현승 선배님을 편의점으로 보내고 빠르게 깜짝 서프라이즈를 준비했다. 풍선을 불고, 초코파이를 쌓아 케이크를 만들고, 그 위에 다양한 색의 초코 펜으로 데코를 해주었다. (목현승 선배님은 7번의 왕자님이다. 🤴🥰)



▲ 현승선배 화교세 축하드려요!

공포 영화와 카드 게임!

절반은 앞에서 대놓고 준비한 서프라이즈(?)를 끝내고, 김동현 선배님 표 소고기 파스타를 먹으며 공포영화 '경성 학교: 사라진 소녀들'을 보았다. 맛있는 파스타와 손에 땀을 쥐며 본 공포영화는 완벽한 조합이었다.



영화의 여운이 가시기 전에 바로 이어서 카드게임으로 도둑잡기와 원 카드를 진행했다. 그러나 포커페이스에 재능이 없는 7번은 아무도 조커를 뽑은 후 표정을 숨기지 못했고, 조커가 누구 손에 있는지 실시간으로 알 수 있었던



▲ 고기 먹자~~
저수지 풍경은 덤~

게임이었다😄😄 “우리는 조커 페이스로 이 게임에 참여할 것을 진실한 마음으로 선사합니다.” 급한 대로 선서를 실시했지만 모두가 실실 새어 나오는 웃음을 숨기지 못했다고 한다. (조커 페이스는 조커를 뽑은 후, 포커페이스 하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



▲ 조커페이스 그거 어떻게 하는 건데
ㄴ아니 일단 앞니를 보이지 말아봐.

원카드까지 한 후, 결국 카드게임으로 녹다운된 우리는 방바닥에 대자로 뺨어버렸고, 한 방에 누워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다 스르르 잠에 들었다. 방바닥이 너무 따듯했고, 도란도란 나누는 이야기가 좋았고, 편안했다. 그렇게 가져간 술은 입에도 안 대고 잠들었다고 한다.



24시간을 함께한!

있는 침대를 놔두고 굳이 굳이 방바닥에서 잠들었던 7번은 아침에 일어나서도 한참을 이야기하다 체크아웃 시간이 다 되어 나와, 함께 국밥을 먹으러 갔다. 부스스한 얼굴로 순대 국밥을 먹고 있으니 새삼 정말 많이 편해졌다는 생각이 들었다. 처음 만나 어색했던 때가 엇그제 같은데 이제는 정말 든든한 가족이 생긴 느낌이었다. 처음부터 걱정은 없이 기대만 됐던 여행이었지만, 기대 이상으로 완벽했던 여행이었다.

이 여행을 추진해 주신 목현승 선배님과 항상 분위기 메이커셨던 유하영 선배님, 언제나 섬세하게 모두를 챙겨주시는 김동현 선배님, 야무지고 센스 넘치는 정연이까지 모두에게 감사하다는 인사를 드리고 싶다. 😊

소감 한마디!

20학번 목현승: 입학이 엇그제 같은데 포천에서는 최고참이 돼서 뺨엠티를 다녀오게 되어 시간이 참 빠르다는 생각이 들었다. 뺨후배들을 데리고 엠티를 간다고 하니 주변에서는 '자기가 놀고 싶어서 후배들 고생시킨다' '눈치가 없다' 등 비방 여론이 있었지만 정작 우리끼리 잘 놀았다는 사실을 세상에 알리고 싶다. 애들아 작년 1년 동안 학교 생활하느라 고생 많았고, 포천을 잘 지켜줘 나 먼저 간다~~

21학번 유하영: 매 학기 1-2번 뺨모임을 했지만 뺨엠티는 처음이었습니다. 저희끼리 힘을 모아 요리도 하고 고기도 구워 먹고 너무 재밌었습니다! 같이 영화도 보고, 게임도 하면서 친밀감을 한 층 더 쌓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끝으로 뺨엠 추진해주신 목현승 선.배.님.께 감사하며, 뺨엠 또 갑시다 ^^

22학번 김동현: Chill 뺨 엠티를 가자는 얘기가 처음 나왔을 때 설마 진짜 가려나? 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역시 chill guy 현승이 형의 추진력은 대단하더군요..! 항상 밥 먹고, 카페 가고 했던 일반적인 뺨모와는 달라 너무 좋습니다. 3년 동안 봐왔던 현승이 형 모습 중에 제일 행복해했던 것 같아 저도 정말 좋았습니다. 끝으로 이 모든 걸 추진해 주신 잘생기고, 키 크고, 멋있으신 chill 뺨 대장님 '놀고 싶으실 땐 언제든지 환영입니다 연락 주시면 저희 바로 달려가겠습니다~ (현승이형 이렇게 적으면 되죠?)

23학번 손윤서: 술 없이도 이렇게 오랜 시간 이야기를 나누며 즐거울 수 있다는 사실이 놀랍고 신기했습니다. 현승 선배와 또 언제 갈 수 있을지 모르는 뺨 엠티라는 사실에 더 소중하고 감사한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7번에서 이 멤버로 함께할 수 있어서 기뻛고, 현승 선배 언제든지 연락 주세요~~ 바로 집합하겠습니다~

24학번 최정연: 밖에서 오들오들 떨면서 고기를 구워 먹었던 것도 너무 좋았구요! 다 너무 재밌었지만 하이лай트를 뽑자면 아무래도 조커페이스가 아니었나 싶어요. 시간 가는 줄 모르고 깔깔대며 웃었던 기억이 납니다ㅎㅎ 기회가 된다면 다음에 또 가고 싶어요.



정연이가 이걸
입으로 불어서 만들었어요~~



형 어딴게요 ㅋㅋ



USA ~~See~~ Ji!

서부 여행기 (LA편)

명소



그리피스 천문대, Griffith Observatory (★★★★★)

그리'니치' 천문대가 아니라 그리'피스' 천문대!

영화 '라라랜드' 속 두 주인공이 LA 야경을 배경으로 춤을 추던 몽환적인 장면의 무대, 바로 그리피스 천문대입니다. 낮에도 아름답지만, 특히 야경 명소로 유명한 이곳에서 바라본 LA 전역의 모습은 정말 잊을 수 없을 정도로 황홀했습니다. 수많은 불빛이 만들어내는 도시의 풍경은 제 걱정과 근심을 한순간에 사라지게 했고, 그저 멍하니 바라보며 시간을 잊을 정도로 몰입하게 만들었습니다. 숙소와 가까운 덕에 LA에 있는 동안 세 번이나 방문했지만, 그때 더 자주 가지 못한 게 아직도 아쉬울 정도입니다...

Tip! 교통) DASH(observatory/los feliz) ""무료"" 셔틀 버스

차의과학대 LA 기숙사를 이용하게 된다면, 걸어서 5분 거리에 정류장 존재!



더 그로브, The Grove (★★★★★)

잠시 멈춰, 아무 생각없이 쉬어 가는 곳



인도를 가로지르는 전철, 매주 목요일마다 열리는 재즈 공연, 잔디밭에서 낮잠을 즐기는 사람들까지... 이곳을 찾는 사람들은 단순 쇼핑이 아닌 삶의 여유를 느끼러 오는 곳 같았습니다. LA에 방문하게 된다면, 더 그로브에서 '팜파스그릴'의 브라질 스타일 BBQ를 맛보며 재즈 공연을 감상하고, 잠시 일상을 내려놓고 쉬어 가는 시간을 가져보시길 추천드립니다.

Tip! 더 그로브 내 씨즈캔디(See's Candies) 매장이 있는데, 방문만 해도 다양한 초콜릿 시식할 수 있으며 특히 '롤리팝'과 '토피에츠'가 너무나 맛있으니 잔뜩 플렉스하시길...

- 베니스 비치, Venice Beach (★★★★)

진짜 LA 해변의 풍경을 느끼고 싶다면?

다들 '인생 해변'이라며 산타모니카를 추천해서 가봤지만, 왜 이렇게 사람들이 많은지 이해가 안 됐다면? 바로 아래에 있는 베니스 비치를 찾아가 보세요! 베니스 비치에서는 곧게 뻗은 팜트리 사이로 노을 지는 바다를 배경으로 스케이트보드를 타며, 진짜 LA 해변의 자유롭게 활기찬 분위기를 만끽할 수 있습니다. 산타모니카와는 또 다른 매력을 느껴보세요~



- 할리우드 파크, HOLLYWOOD Park (★★★★)

LA에 오면 꼭 가봐야 할 첫 번째 장소



LA의 할리우드 거리는 전 세계 영화와 텔레비전 산업의 중심지이자, LA가 '꿈의 도시'로 불리는 이유를 잘 보여줍니다. 할리우드 사인은 단순한 지형적 랜드마크를 넘어서 문화적, 경제적 그리고 상징적인 중요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할리우드 사인이 가장 잘 보이는 장소, 할리우드 파크에서 잊지 못할 LA 인증샷을 남겨보세요~!

Tip! 할리우드 사인을 더욱 크게 선명하게 담고 싶다면, 조금 멀리 떨어져 2배 줌으로 촬영해보세요!

먹거리

(1) 미국 3대 햄버거 🍔 (In-N-Out & Five Guys & Shake Shack)

◦ In-N-Out | 미국 서부에서만 볼 수 있는 브랜드로, 한국에는 아직 매장이 없다. 가성비가 좋은 편이지만, 엄청 맛있다고 하긴 어렵다. 참고로, 직원에게 요청하면 인앤아웃 종이 모자를 받을 수 있으니, 모자를 쓰고 인증샷 남기자!

◦ Five Guys | 주문할 때 토핑이 고민된다면, "All the way, please"라고 하면 추천 토핑이 다 들어간다. 무료로 제공하는 땅콩도 맛볼 수 있다. 양이 상당해서 성인 남성이 하나만 먹어도 충분히 배부를 정도이다. 개인적으로 세 개 중 가장 맛있었다!

◦ Shake Shack | 한국에도 매장이 많고, 맛도 동일해서 굳이 미국에서까지 먹을 필요는 없다. Shake Shack 대신에 한국에는 아직 없는 Chick fill A를 가보는 것을 추천한다.



(2) 치폴레 (CHIPOTLE)

치폴레는 밥부터 토핑까지 직접 선택하는 방식이라, 서브웨이를 처음 갔을 때 느꼈던 당황감을 다시 한번 느낄 수 있다. 하지만 한 번 익숙해지면 원하는 조합을 만들 수 있어 더욱 매력적이다. 한국인 입맛에도 잘 맞고, 한국에 돌아와서도 생각날 만큼 중독성 있는 맛이 특징이다. 기본적으로 고수가 들어가지만 향이 강하지 않아 부담 없이 즐길 수 있다. 게다가 양이 넉넉해 한 끼로 충분히 배부르고, 두 번에 나눠 먹기에도 좋다. 건강까지 챙기면서 든든한 한 끼를 원한다면 적극 추천한다!

◦ 추천 조합

- ▶ ENTRÉE : 바울(Bowl)
- ▶ RICE & BEANS : half and half & no beans
- ▶ FILLINGS : 스테이크
- ▶ TOPPING : 모든 토핑 + 과과몰리 추가



(3) Seafood Boil



미국에서 색다른 음식을 찾고 싶다면 씨푸드 보일(Seafood Boil)을 추천한다. 씨푸드 보일은 미국식 해물찜 요리로, 새우, 가재, 게 등 다양한 해산물에 옥수수수와 소시지를 더해 매콤한 케이준 소스와 함께 비닐봉지에 담겨 나오는 독특한 음식이다. 모두 함께 일회용 장갑을 끼고 해산물을 손으로 까먹으며 즐기는 방식이 인상적이다. 비주얼은 다소 투박할 수 있지만, 맛은 한국인의 입맛에도 잘 맞아 부담 없이 즐길 수 있다. 저는 라스베이거스의 Hot N Juicy에서 처음 맛보았지만, LA에도 'The Boiling Crab' 이란 매장이 있어 쉽게 접할 수 있다. 가격대가 조금 높을 수 있지만, 새로운 맛과 방식을 경험하고 싶은 분들께 한 번쯤 도전해 보시길 추천드립니다~

교통

(1) 대중교통

LA에서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는 TAP 카드가 필요하다. TAP 카드는 실물 카드로 구매할 수도 있고, 모바일 앱으로 다운로드하여 사용할 수도 있다. 아이폰 사용자는 앱스토어에서 다운로드한 후 애플 지갑과 연동해 사용 가능하며, 갤럭시 사용자는 안드로이드 미국 계정이 필요하다. 충전식으로 운영되며, 처음에는 \$10 정도만 충전해 사용해 보는 것을 추천한다!

LA 버스는 'Metro'라는 로고를 사용하지만, 여기서 Metro는 지하철이 아니라 버스 회사의 이름이다. 한편, 지하철은 분위기가 어두운 데다 홈리스가 많아 가급적이면 혼자 이용하는 것은 추천하지 않는다.

버스를 탈 때는 TAP 카드를 단말기에 태그 한 후 탑승하면 된다. 다만, 외국인 관광객이나 단체 승객의 경우 기사에 따라 태그 없이 그냥 타라고 할 때도 있다. 또한, 뒷문으로 무임승차하는 홈리스가 많아 되도록 앞쪽 좌석을 이용하는 것이 안전하다.

비용 면에서 버스가 훨씬 저렴하므로, 시간이 여유롭다면 오전이나 오후에는 버스를 이용해 보는 것도 좋은 선택이다~!

(2) 택시

미국에서 대표적인 차량 호출 서비스로는 우버(Uber)와 리프트(Lyft)가 있으며, 일반적으로 리프트가 더 저렴한 편이다. 특히, 리프트를 첫 이용할 경우 할인 코드가 제공되므로, 일행과 돌아가며 첫 이용자를 변경하면 더욱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다.

팁 문화도 중요한데, 기본적으로 요금의 10~15% 정도를 팁으로 지불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트렁크에 짐을 실을 경우 짐 한 개당 \$3~\$5 정도 추가 팁을 주는 것이 매너이다. 참고로, 드라이버도 고객에게 리뷰를 남길 수 있기 때문에 팁을 지속적으로 주지 않으면 차량 호출이 어려워질 수도 있습니다^^ㅎㅎ

테마파크

🌐 Universal Studio 🌐

🧸 Disneyland 🧸



▶ 위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LA 북서쪽에 위치 ◦ LA 다운타운에서 차로 20분 정도 거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LA가 아닌 '애너하임(Anaheim)' 도시에 위치 ◦ LA 다운타운에서 차로 50분 정도 거리
▶ 가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89,304원(1-Day Admission, 마이리얼트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54,441원(TIER-5 1Day 1Park, 마이리얼트립) ☆ TIER별로 가격과 들어갈 수 있는 날짜가 상이하기에, 꼭 방문하는 날짜의 TIER 확인 후 티켓을 구입하세요!!
▶ 추천 어트랙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Studio Tour(오직 LA에만!) ◦ the Forbidden Journey(해리포터) ◦ Revenge of the Mummy(미이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Radiator Springs Racers(카) ◦ Incredicoaster(인크레더블) ◦ Guardians of the Galaxy(가디언즈 오브 갤럭시)
▶ 후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슈퍼 마리오 오픈런 필수! ◦ 4D 어트랙션 多, 울렁거림 주의 ◦ 방학기간이라도 평일이라면, 익스프레스 티켓 없이도 웬만한 건 다 탈 수 있음. ◦ 유니버설 스튜디오 재팬을 가봤다면, 할리우드는 PASS...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저작권의 위대함을 느낄 수 있는 공간 ◦ 디즈니랜드라 유아용 놀이 기구만 생각했다면? 오산! ◦ 하루에 하나의 PARK 돌아보기 충분 (두 PARK 모두 가고 싶다면 지니 플러스 구매할 것!) ◦ 볼꽃놀이는 디즈니랜드 파크, 분수쇼는 디즈니 캘리포니아 어드벤처 파크

▶ 마지막으로 기다릴 시간도 없고, 돈도 없다?!하면 싱글라이드 애용하세요!!(☆제일 중요☆)

차약이들의 시험 기간 이모저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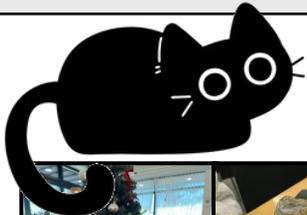
차의과학대 약학과 의 학교생활에서 빠질 수 없는 중요한 기간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바로 중간/기말고사를 위한 시험 공부 기간입니다! 시험이 가까워질수록 많은 양을 공부하느라 힘들고 막막하기도 하지만, 동기들과 함께 잊을 수 없는 추억을 쌓아 가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이번 기사에서는 차약이들이 어떻게 시험 기간을 보내는지 설문조사를 통해 알아보았습니다. 또한 학우분들이 직접 제보해 주신 사진들을 통해 시험 기간의 에피소드를 생생하게 담아 보았으니 모두 재미있게 읽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신은서 기자



설문조사 결과

<h3>1. 평균적인 하루 공부 시간</h3> <p>하루 5-7시간 정도 공부한다는 답변이 43%로 1등을 차지했습니다. 7시간 이상 공부한다는 답변 또한 30%에 달했습니다. 차약이들의 공부에 대한 끈기와 열정을 엿볼 수 있는 결과였습니다.</p>	<h3>2. 시험 공부를 시작하는 시점</h3> <p>설문 결과, 시험 2주 전부터 본격적으로 공부를 시작한다는 답변이 53%로 가장 많았습니다. 1주 전 (33%), 3주 전 (10%) 등의 답변이 뒤를 이었습니다.</p>
<h3>3. 주로 이용하는 공부 장소</h3> <p>많은 학우 분들이 학교 기숙사에 거주하는 만큼 기숙사 방에서 공부한다는 답변이 40%에 달했습니다. 집(자취방, 본가 등)과 현암기념관 열람실에서 공부한다는 답변이 각각 20%, 14.3%로 뒤를 이었습니다. 그 이외에도 스터디카페, 미래관 열람실, 북카페 등 다양한 답변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p>	<h3>4. 주로 사용하는 학습 도구</h3> <p>많은 학우분들이 이 문항의 1등 답변을 예상하실 수 있을 텐데요, 바로 "아이패드"입니다. 90%가 아이패드를 사용한다고 답변해주셨습니다. 노트북 문서 프로그램, 자료 출력, 카드 형 암기 프로그램, 전공서적 등 다른 세 문항에 비해 정말 다양한 응답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그만큼 많은 학우분들이 자신만의 공부법을 고민하고 시험 기간에 슬기롭게 활용한다는 결과일 것입니다.</p>



차약이들의 시험기간 추억 모아보기



식막한 시험기간을 버티는 법:
크리스마스 캐롤과 간식 - 22 이채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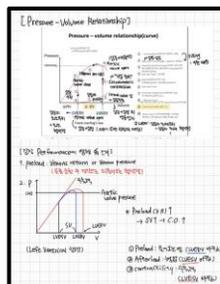
24의 섬기간 파스쿠찌파티예요!
aka. 발동튀김들의 모임 -24 차약이들



우등생 우수진이 나머지 학생들의
학업을 도와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 21 이가영



시험기간 D-14.. 1일 1까르보볼닭을
위해 박스채로 집에 시켜두고 먹었습니
다. 이제 핑크색만 봐도 물려요.
-익명의 차약이



최대한 예쁜 글씨
로 필기하며 공부
하기 싫은 마음을
눌렀던 기억이
있습니다..
-익명의 차약이



룸메이트(정혜원)의 분자세
포생물학 공부법 흐흐.
-익명의 차약이

차팜인을 후원해주세요!

독자 여러분, 이번 차팜인 14호 즐겁게 보셨나요? 차팜인은 차의과학대학교 약학대학 구성원들이 함께 어울려 만드는 소식지입니다. 발간을 이어 가면서, 지속적인 운영을 위한 시스템 구축의 필요성을 절감하였습니다. 보다 나은 소식지를 만들기 위해 여러분의 후원을 기다립니다.

NH농협은행 302-1873-7787-51 (예금주: 김동현)

보내주시는 소중한 마음, 알뜰히 사용하여 더 좋은 지면으로 보답 드리겠습니다. 관련하여 문의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 연락처로 연락 부탁드립니다. 성실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chapharmin@naver.com / 010-2751-4015

여러분의 원고를 기다립니다!

약학대학 소식지 <CHA PHARM IN>은 차약인들이 직접 차약인들의 소식을 담아, 차약인들과 나누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차약인들과 나누고 싶은 소식이라면, 어떤 것이든 환영합니다. 짧은 수필, 나누고 싶은 정보, 재밌게 읽은 책에 대한 소개, 방학 기간 동안 다녀온 여행의 기록, 소중히 그린 그림, 사진, 만화, 문학 등 형식에 상관없이 여러분의 이야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차팜인은 지면이 허락하는 한 최대한 많은 내용을 실을 수 있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궁금한 점이 생기셨다면 주변의 소식지 편집위원이나 아래의 연락처로 문의 부탁드립니다.

기고해주시는 분들께는 소정의 답례 역시 준비되어 있습니다. 차약인 여러분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CHA PHARM IN> 편집장 목현승
chapharmin@naver.com / 010-6476-7094

